

광역통근자수 214만명 교통난 극심 교통청 논의만 1년째... 전환점 필요

수도권 광역교통청 시대 열리나

① 지옥철·만원버스... 일상화된 출퇴근 전황

인천에서 서울 강남 직장으로 출근하는 A씨는 월요일 아침 서울지하철 9호선을 타기 위해 일찌감치 집을 나선다. 그러나 마침 다가오는 열차를 본 그는 고개를 가로짓는다. 강남을 향하는 열차는 이미 한 사람 비집고 들어설 틈조차 없이 가득 찼다.

수원을 향해 퇴근길에 오른 B씨는 사당역에 이르러 아연실색하고 만다. 늘어난 줄만 50m, 기다리는 이들의 표정엔 짜증이 가득하다. 다른 교통편도 마땅치 않다. 결국 B씨는 아예 늦은 귀가를 택하고 인근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30만명, 서울에서 일하는 경기·인천 지역의 통근자 수다. 다른 수도권 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광역통근자 수는 214만명에 달한다.

통근자들의 출퇴근 교통수단인 도로와 철도의 수용력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지 오래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본부에 예산권과 집행력 등 실제 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탓이다.

그 동안 수도권의 교통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가 대표적인 예다. 인천시 6개 광역버스업체들은 적자를 이유로 지난 8월 21일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적용돼 적자가 보존되지만, 광역버스의 경우 행정구역

벗어나 운영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엔 수도권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광역버스의 확충을 달가워만 하지 않는 입장이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적자 축소를 위해 광역버스노선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서울시의 광역버스가 증가하면 서울의 도로 혼잡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7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을 열고 광역교통청 설립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처럼 도시와 도시를 넘나드는 광역교통망에는 이해당사자별로 상당한 입장차가 존재한다. '수도권'이라는 큰 그림을 보며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전망이 밝아 보인다. 아울러 지방분권이 국가적인 어젠다가 되며 광역교통청정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을 열고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은 배경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이견을 조율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합의, 광역교통을 효율화하고 도심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문제를 두고 어

전히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기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교통청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질지가 광역교통청의 실효성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광국 기자 kimgg@

전국 전기분야 담당 공무원들과 '소통'

전기공사협, 전기공사업·신재생E 담당관 워크숍

전기공사협회가 전국 지자체의 전기공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제주 난타호텔에서 '2018년도 전기공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동국 전기공사협회 상무이사과 전국 지자체 전기공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 27명,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협회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지방계약법 해설, 최근 트렌드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

먼저 김명도 한국에너지공단 부장이 재생에너지 정책 및 지역에너지 계획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경근 안양시청 회계과 계약2팀장은 지방계약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계약 실무와 계약제도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공유했다. 또 권창오 전기공사협회 법륜제도팀장이 전기공사업법령의 정확한 업무 적용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전달하며, 지자체의 발주업무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전기공사업 실태 조사의 추진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전기공사업 담당관 워크숍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협회는 워크숍을 통해 전기공사업 업무에 대해 산업부와 지자체 등과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체계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전력산업계의 트렌드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담당관들을 초청해 국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아울러 이 같은 워크숍을 통해 업계 현안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또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 내 풍력발전단지 등 전력산업시설물을 견학하고,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류재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전기공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담당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기공사 분리를 위한 취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담당관들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분리를 위한 업무를 확보, 전기공사 시공 품질 확보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제주 난타호텔에서 '2018년도 전기공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협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워크숍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애로를 공감하는 한편 업계 이슈와 계약 실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기본설계 착수

경부선 선로용량 확대·청주공항 활성화 기대

천안~청주공항을 잇는 복선전철의 궤도기본설계가 착수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삼균)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의 추진을 위해 궤도분야 기본설계 용역을 10일 입찰 공고하고, 11월부터 설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05년 개통한 수원~천안2복선전철화사업에 이어 수송수요가 집중돼 있는 경부선 선로용량 확대를 위해 천안에서 서창까지 32.2km 구간을 2복선전철화하는 사업이다.

완공 시점은 2022년으로, 총사업비 8216억원이 투입된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청주공항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50분에서 약 30분 단축된 1시간 20분으로 줄어들어, 수도권에서 충청권, 중부내륙권까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이번 사업에서 충북선 서창에서 청주공항역까지 노반, 궤도, 신호시스템 등 시설개량을 함께 추진한다. 또 청주역과 오근정역 사이에 북청주역을 신설하고, 현재 청주국제공항에서 약 600m 떨어진 청주공항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3.6km 구간의 선로도 이설할 예정이다. 김광국 기자

현대로템, 2712억 규모 방글라데시 디젤전기기관차 70칸 수주

현대로템이 방글라데시에서 디젤전기기관차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 철도청과 2억 3900만 달러(약 2712억원) 규모의 디젤전기기관차 70칸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수주한 약 410억원 규모의 디젤전기기관차 10칸에 이은 두 번째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수주로 인해 현대로템

은 방글라데시 전체 디젤전기기관차 365칸(계약 물량 포함)의 약 32.6%를 차지해 경쟁사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게 됐다.

열차는 오는 2020년부터 창원공장에서 생산에 돌입해 2021년 상반기 초도 열차 편성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전 열차 편성이 납품될 예정이다. 납품된 차량은 방글라데시 다카~치타공 노선에 투입될

예정으로 교통 기반시설이 취약한 현지 국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이 수주한 차량은 선로 폭이 좁은 협궤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길이 약 19m, 너비 약 2.7m, 설계 최고 속도 시속 110km로 운행할 수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 방글라데시 디젤기관차 차량 수주를 기반으로 디젤차량뿐만 아니라 객차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광국 기자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서울 주택수요 분산한다

국토부 제1차관 주재 합동 회의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서울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손병석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신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 SH, 경기도 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 등 기관 관계자들은 앞서 지난 9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 공공주택지구 관련 교통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계획할 시에는 광역철도·도로·BRT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실효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 올해 연말 발표되는 '10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도 지구별로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할 개발로 인한 중·소규모 개발사업에서도 교통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김광국 기자

대전시회, 제15회 대전시회장배 골프대회

대전시회(회장 고기배)는 지난 8일 유성컨트리클럽에서 '제15회 대전시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류재선 중앙회장과 허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 임세환 엘비라이프 사장을 비롯한 전기공사업계 인사와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과 대전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 우승은 신현배 선진 대표가 차지했고, 메달리스트는 이상우 한화전력 대표, 준우승은 송근희 서진전기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기배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대전시회가 더욱 단합하고, 상호간의 협력과 역량을 결집해 협회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회는 제15회 대전시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전남도회, 저소득층 이웃 대상 봉사활동

전남도회(회장 전연수)는 지난 10일 전남 순천시 송기리 송기마을일대에서 저소득층 이웃에 대한 노후 전기설비 무료 개보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전기공사협회 대표 및 기술자 12명이 참가한 이날 봉사활동은 전기안전 점검과 함께 노후전기배선 및 전등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순천지점에서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해당 지역 협의회로서 이번 봉사활동의 주축이 된 박용순 순천전기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가진 재능을 펼쳐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전남도회는 전기안전공사 순천지점과 함께 저소득층 이웃을 대상으로 한 전기설비 무료 개보수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북도회, 공레이 피해지역 찾아 재능기부

경북도회(회장 장현우)는 태풍 공레이로 인한 수해를 입은 영덕군을 찾아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복구 활동을 펼치며 재능기부에 나섰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한 이번 수해복구 봉사활동에는 전기공사협회 영덕군과 포항·울진 등 회원 및 기술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큰 강구면, 축산면 일대 150여 가구의 전기시설 보수 및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경북도회는 침수 피해를 입은 모든 가구가 복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장을 진두지휘한 장현우 회장은 "회원님들의 협조로 수해지역에 전기인들의 온정을 전할 수 있었다"며 "수해지역이 조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기업들의 힘을 기꺼이 모아 재능기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도회는 태풍 공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 지역을 찾아 복구 활동을 펼쳤다.

전기공사협회 네트워크